2008-3호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

2008. 5. 1.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과

기업윤리 브리프스
Business Ethics Briefs

< 차 례 >

01 유엔글로벌콤팩트 실천 사례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16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대한주택공사

20 국내 윤리경영 동향
기업관련
정부관련

☞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디지털기업윤리센터(http://ethics.acr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링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che24@acrc.go.kr 또는 02-360-65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유엔글로벌콤팩트 실천 사례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 이 글은 UN Global Compact 사무국이 2007년 6월 발간한 『*Human Rights, Labour, Environment, Anti Corruption,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 An Inspirational guide to implementing the Global Compact*』 중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부분을 번역, 정리한 것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 Global Compact는, 기업들이 10대 원칙의 이행에 힘쓸 뿐만 아니라 UN의 더 큰 목표, 특히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지원하는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o Global Compact이 강조하고 있는 모범적 기업의 시민정신이라는 개념은 10대 원칙의 내부적 이행 독려와 협력을 통한 참여 장려라는 두 가지 상보적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지난 수십 년간 국제 사회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왔음

- o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 없이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탄탄한 기업 부문이 필요함

- o 즉, 정부는 우선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기업들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의 글로벌화를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투자, 협력, 교역 및 기타 활동(engagement)을 통해 일자리와 수익, 시장, 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창출해야 함

□ 기업들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o 기업 활동을 통한 빈곤 감소와 경제 성장은 눈앞에 보이는 사업적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와 시장의 안정화에 공헌함

o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은 건전하고 역동적인 노동력 창출에도 기여함

□ 그러나 개발도상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난관에 봉착할 수 있으며, 기업 내부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지식과 역량이 필요할 때도 있음

o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는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과 전문 기술을 확보하는 것임

o 다양한 부문간에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어려운 문제들을 손쉽게 극복할 수 있고, 자원과 역량을 혁신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결실을 이끌어 낼 수 있음

o 협력은 서로의 상호보완적인 강점과 능력을 강화, 결합, 활용하게 함으로써 참여 주체들이 개별 목표를 더욱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줌

□ 협력의 기본 개념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에 존재하는 공통 영역을 찾아, 민간 부문의 기술 및 전문 지식을 공공 부문이 가진 적법성(legitimacy) 및 개발 사안에 대한 지식과 결합하는 것으로,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협력은 결코 정부의 권위와 정당성을 해치거나, 민간 부문의 엄청난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o 오히려 빈곤 감소, 보건, 교육, 지역사회 개발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상생(win-win)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다음에 소개할 사례는 네 개의 기업과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협력을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개별 목표와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기업과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해 내는지를 보여 주고 있음

사례1)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자사 영역 확대

☐ Global Alumina는 2000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니(Republic of Guinea)에 매장된 방대한 양의 보크사이트를 개발하고자 설립된 기업임

o 기니는 알루미늄의 원료 광석인 보크사이트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Global Alumina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알루미늄 제련소임

가. 도전 과제(The Challenge)

☐ 기니는, 방대한 자원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발전이 안 된 국가 중 하나로, 문맹률이 높고 운송, 교육, 통신, 의료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임

☐ Global Alumina는 기니에서 다른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알루미늄 제련소를 설립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건축 인원 1만여 명, 운영 인원 1,300여 명이 투입될 전망이며, 제련소 설립을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상당수 필요한 상황임

o Global Alumina는 기니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사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기니인들을 고용하고자 함

o 그러나 기니에는 교육 기회가 많지 않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유경험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Global Alumina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동 제련소는 지금까지 자급 농업 용지로 사용되어 온 1,000헥타르의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어서, Global Alumina는 동 프로젝트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 활동을 대체해 줄 수단을 찾아주어야 함

o Global Alumina는 앞으로도 기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활동을 벌일 계획이므로, 지역 주민들이 제련소 건설과 생산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훌륭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o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채광 프로젝트에서 너무나 당연시 되어 온 관행 즉,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이 해당 지역의 정부를 대신해 의료, 교육, 공공시설과 같은 기본 서비스 제공을 사실상 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함

나. 실천 사례(The Actions)

□ Global Alumina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대대적인 토론을 거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 및 보상 계획안 (Community Development and Compensation Plan)을 마련하였음

o 동 계획안은 프로젝트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여기에는 새로운 상수원, 학교, 의료 센터의 건설, 조산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마을의 재조림(reforestation) 사업, 소액금융(microfinance) 프로젝트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Global Alumina는, 지역 주민들이 이 계획안의 주도권을 잡고 자사의 직접적인 개입이 끝난 후에도 더욱 더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음

o 이를 위한 최선책은 지역사회 역량강화 활동을 추진하는 데 경험이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하는 것이었음

o 이를 위해 Global Alumina는 아프리카개발재단(ADF : African Development Foundation)과 현지 업무를 담당하는 동 재단의 산하 기관인 개발지원센터 (d'Appui au Développement - Center for Development Support, CAD)를 파트너로 선택하였음

□ ADF와 CAD가 취한 접근방식은, 의료시설 건립 등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 경비를 지역사회에 제공한 후, 지역사회가 동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계획, 관리,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지도,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었음

o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프로젝트의 성패가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됨

□ ADF는 기니의 국내 기업들이 지닌 역량을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 각 기업들이 Guinea Alumina 건축에 필요한 능력 중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 보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o ADF는 이를 통해 다수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기업이 더욱 뛰어난 기술과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해외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비 및 운영자본을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대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다. 구체적 이점(The Benefits)

□ Global Alumina는 ADF, CAD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개발이 이루어 지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력업체에 현지 요소가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대상 지역 주민의 생계 수단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이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현지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현지 역량 강화에 혁신적 접근 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대한 책임이 바로 본인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

o Guinea Alumina는 그 과정을 돕는 역할만 수행할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음

□ Guinea Alumina는 제품과 서비스를 현지 업체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o 현지 업체는 대응 시간(response time)이 짧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 공동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o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Guinea Alumina는 앞으로도 계속 생산 차질(production disruptions)을 최소화하고, 최고의 신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사례2)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의 권리 신장

□ IKEA는 1943년 스웨덴에 설립된 세계적인 가정용 가구 유통 기업으로, 현재 35개국에서 25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훌륭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음

가. 도전 과제

□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아동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음

o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아동들을 집으로 돌려 보낸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다른 공장에 다시 취직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노동을 일삼는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그 업체들이 다른 고객을 찾아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아동노동(child labour)을 근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

o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기업 혼자 힘으로는 아동노동을 근절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지난 20년간 IKEA를 비롯한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아시아와 여타 개발도상국에서 공급업체를 개발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o 1990년대 초에는 다국적기업들의 협력업체에서 행해지는 아동노동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음

o 이러한 상황에서 IKEA는 개발도상국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음

나. 실천 사례

□ IKEA는 2000년에 인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아동노동이 횡행한다고 알려진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의 '카펫 생산 지역(carpet belt)'에서 아동노동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UNICEF와 협력하기로 하였음

o IKEA는 우타르프라데시의 업체들로부터 대량으로 카펫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동노동에 대한 사후적 해결(rehabilitation) 보다는 사전예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UNICEF와 협력하기로 결정하였음

□ IKEA와 UNICEF는, 소외된 지역사회의 부채 문제, 청장년 실업, 빈곤, 장애 및 질병, 질 높은 초등교육 기회 부족과 같은 근본적 원인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음

□ IKEA와 UNICEF가 구상한 협력의 중점 사안은,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그들의 힘을 모아 아동노동 방지를 위한 전략을 실천하는 것임

o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학 운동(School enrolment)을 추진한 것은 물론 정규 초등 교육에 대한 임시 방편(transitional measure)으로 대안교육센터(ALC : alternative learning centres)를 설립하였음

o 질 높은 교육 기회는 아동노동을 예방하는 데 필수 요소로, IKEA의 이러한 활동은 대상 지역의 모든 6~12세 아동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인도 정부의 노력을 보완하는 것이었음

□ 아이를 일터로 내보낼 수 밖에 없는 가정에서는 대를 걸러 계속되는 부채 부담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함

o 따라서, IKEA는 2006년 하반기에 우타르프라데시의 여성 1,600명이 자조(self-help) 그룹을 결성하도록 지원하였는데, 현재는 자조 그룹의 인원수가 2만 2,000명에 달함

o 자조 그룹에서는 여성들이 부채를 갚고 벌어들인 수입을 가족에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와 영양 섭취, 절약, 창업에 대해 교육하고 있음

o 2005년에 IKEA는 또 다른 방안을 통해 자조그룹을 지원하였는데, 여성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IKEA 상점에서 판매하는 쿠션에 수를 놓게 함으로써 자조 그룹의 여성들이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음

다. 구체적 이점

□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아동권 신장 프로젝트는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참여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그 중 35퍼센트 정도는 우타르프라데시주 동쪽 마을에서 강도 높은 카펫 제조 작업을 하며 살아가는 14세 미만의 아동들임

o 입학 운동과 대안교육센터 덕분에 지금까지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8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음

o IKEA와 UNICEF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 프로젝트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타르프라데시의 더 많은 마을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수백만 명 이상의 지역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계획임

□ 자조(self-help) 전략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신감, 의사결정 능력을 신장시켰음

o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교육과 경제 활동 기회 덕분에, 부채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아동노동과 악덕 대부업자들의 터무니없는 이자율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음

o 단순한 경제적 개입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이들이 더 많은 수익 창출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임

□ IKEA는 UNICEF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의 사업 목표를 성취하였음은 물론 아동과 여성들에게 배움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음

o 비록 이러한 활동의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기란 불가능하지만, IKEA는 이들 지역에서 많은 신뢰을 쌓고 엄청난 무형 자산을 확보하였음

사례3) 가나의 지속가능한 생계 활동 보장

□ Cadbury Schweppes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명성을 2백 년 넘도록 지켜 온 세계 최대의 제과 업체임

o 영국에서 생산되는 Cadbury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열매 대부분은 가나에서 재배됨

o William Cadbury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이유로 상투메(Sao Tomé)에서 철수하여 1908년 가나에서 코코아 산업 기반 설립을 지원하였음

o 지난 100년에 걸쳐 Cadbury Schweppes가 시도한 가나에서의 다양한 협력과 활동 덕분에, 가나의 코코아 열매는 좋은 품질을 인정 받아 전세계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으며, Cadbury Schweppes는 이와 같은 고품질의 코코아를 초콜릿 생산 원료로 계속 공급받을 수 있었음

가. 도전 과제

□ 코코아는 적도 근처 열대 삼림에서 재배되는데, 이들 지역은 기반 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음

o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경제, 사회, 환경, 업무적으로 농업인들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음

o 또한 코코아나무는 7년이 지나야만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늘 생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

o 그리고 코코아를 재배하는 농부들은 식수원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은 돈을 벌거나 교육을 받아야 할 시간에 물을 확보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함

□ 코코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Cadbury Schweppes가 농업인들을 도와 코코아의 생산 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생계 활동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가족과 마을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음

나. 실천 사례

□ Cadbury Schweppes는 코코아 업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 및 국제 시민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음

□ Cadbury Schweppes는 2001년, 제일 먼저 식수원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음

o 이 작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기업 지원 및 직원 모금을 통해 이루어졌음

o Cadbury Schweppes는 이 작업을 위해 현지 농부들의 협동조합인 Kuapa Kokoo 사회발전기금(Kuapa Kokoo Social Development Fund)과 국제 자선단체인 WaterAid와 협력하였음

□ Cadbury Schweppes는 ‘지속가능한 수목작물 프로그램(Sustainable Tree Crops Programme)’의 회원인데, 동 모임은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소규모 자작농의 사회·경제적 복지와 수목작물 농지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임

o 동 이니셔티브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현장 학교(Farmer Field Schools)’에서는, 농부들이 고품질 코코아 재배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전수받고, 코코아 무역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2005년부터 Cadbury Schweppes는 환경오염 감시 단체인 Earthwatch, 가나자연보호연구센터(Ghana Nature Conservation Research Centre)와 함께 혁신적인 생물학적 다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o 동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코코아 농사를 장려하고자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여러 환경에서 코코아의 생산을 관찰하고, 생태학적으로 더욱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고품질의 코코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법을 지원하며, 농지를 복원하고 버려진 농장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o 70명의 Cadbury Schweppes 종업원들은 3년의 연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나에서 자발적인 생태학적 자료 수집 활동을 펼칠 예정임

□ 또한 Cadbury Schweppes는 협력업체의 업무환경 개선을 목표로 조직된 이해관계자 그룹인 국제코코아이니셔티브(ICI : International Cocoa Initiative) 위원회의 회원임

o ICI 위원회는 근로 기준을 확인·감시·개선하기 위한 노동인증시스템(labour certification system)을 개발하고, 농민들의 소득, 교육 수준, 사회 여건 향상을 위한 사회 및 환경 프로그램에 투자하기 위해 코코아 생산국 정부들과 협력하고 있음

다. 구체적 이점

□ Cadbury Schweppes는 가나에서 여러 단체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코코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왔음

o 2006년 말까지 Cadbury Schweppes와 협력 단체들이 개발한 식수원은 모두 375개이며, 이로 인해 5만 명의 주민이 깨끗한 식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음

o 안전한 식수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안정적으로 작물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증대와 영양분 공급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음

o 물 확보를 위해 사용하던 시간이 줄고 교육과 농사, 기타 소득 창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더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됨

□ 최고의 영양 성분을 지닌 코코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코코아를 기르는 사람들이므로, Cadbury Schweppes는 코코아 재배 농민의 보호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음

o 이들의 풍요로운 삶은 Cadbury Schweppes의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농민들을 지원하고 독려해야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실한 코코아 협력업체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사례4) 환경적·사회적 영향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 개선

□ Stora Enso는 제지, 포장, 목재상품 판매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임

가. 도전 과제

□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음

- o 이에 따라 Stora Enso는 자사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신뢰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음

□ Stora Enso는 2002년 중국 광시성에 플랜테이션을 설립하였음

- o Stora Enso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마다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규모의 새로운 플랜테이션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잠재적 외부요인을 관리할 수 있음

- o 이러한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처하는가를 보여 줄 수 있음

- o 또한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ESIA :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를 통해, 기업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해결할 수 없는 개발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o Stora Enso는 이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사와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가진, 믿을 수 있는 전문 조직과 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채택하였음

나. 실천 사례

□ Stora Enso는 광시성의 플랜테이션 시설에 대해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UNDP(유엔개발계획) 중국지부에 동 평가의 수행 및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음

o UNDP 중국지부와 Stora Enso는 UNDP 중국지부가 동 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음

o 자료 분석과 현장 방문을 통해 광시성 남부 지방의 경제, 환경 및 사회를 분석하는 것이 동 연구의 주된 내용이었음

o UNDP는 광시성 주민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까지 연구 내용에 모두 포함시키기 위해 기존의 기술 분석 외에 다른 접근 방식도 폭넓게 활용하였음

□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 보고서는 2005년에 출간되었음

o 동 보고서의 결과는 Stora Enso의 정책 및 원칙과 함께, 이후 Stora Enso의 광시성 지속가능성 계획(Sustainability Agenda)과 구체적인 행동 방안의 근간이 되었음

□ UNDP 중국지부는 동 보고서 출간 직후 '현지 주민의 참여', '생물학적 다양성 보호' 등 보고서에 언급된 주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하였음

o 2006년 11월, UNDP 중국지부와 Stora Enso는 5년에 걸친 협정을 체결하였음

o 동 협정은 UNDP와 Stora Enso가 함께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 지식을 갖춘 이해관계자들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계자들 역시 동 협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다. 구체적 이점

□ Stora Enso는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고객,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중국 플랜테이션 공장에서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음

□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 보고서는 분명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Stora Enso가 동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관해 외부 시각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임

- o Stora Enso는 '또 다른 눈(extra pair of eyes)'을 갖기 위한 독립적인 단체를 끌어들임으로써,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자사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음

□ 중국에서는 아직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 실시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음

- o UNDP는 이번 연구를 향후 대규모의 상업 또는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 실시될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의 모델로 삼을 계획임

II.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 대한주택공사 사례*

* 2008.3.13.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윤리경영 비전 및 추진 전략≫

■ 비전체계도

■ 단계별 추진 전략

목표
- 사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존경받는 기업
- 고객신뢰 · 지속가능경영으로 기업가치 제고

추진과제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 (2004 ~ 2006년)
- 윤리행동규범 정립
- 윤리경영 전담부서 마련
- 사회공헌 활동 체계화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기업윤리문화 정착 (2007 ~ 2009년)
-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 핵심사회공헌사업 확산
- UN Global Compact 가입
- 윤리경영 실천 문화 정착

글로벌 윤리경영 확산 (2010년 이후)
- ISO26000등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추진
-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
- 지속가능경영 체계 정착

≪윤리경영 추진 체계≫

■ 윤리경영 추진 조직

구 분	기 능
윤리경영위원회	▪ 윤리경영 추진 기본방향 설정 ▪ 주요 사업 심의 및 의결
청렴기획단	▪ 반부패 청렴시책 수립 및 과제 심의
감사실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부패방지 교육 및 내부 감사활동 ▪ 내부공익신고제도 운영
전략혁신처	▪ 공사 윤리경영·사회공헌 주관부서 ▪ 윤리경영 대외활동 및 홍보 ▪ 사회공헌 추진계획 수립·시행

■ 윤리기준

구 분	기 능
윤리강령	▪ 공사의 기업윤리 이념 및 가치관 제시
행동강령	▪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구체적 행위기준 제시
윤리·행동강령 관련지침	▪ 임원직무청렴규정 ▪ 공사와 임·직원간의 거래제한지침 ▪ 골프 및 사행성 오락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등

■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구 분	기 능
윤리경영 사이버교육	▪ 연1회(20시간) 전직원 사이버 윤리경영교육 ▪ 기본교육('05)→사례교육('06)→심화교육('07)
사회공헌전문가교육	▪ 사회공헌 담당자 워크숍(연2회)실시 ▪ 사회공헌전문가 초빙 특별교육(연2회)실시
청렴 전문가 초빙교육	▪ 한국투명성기구 전문가 초빙, 본부별 순회교육 실시 ▪ 공사에 적합한 청렴교육 교재 개발
신입사원 윤리경영 교육	▪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의 필요성

≪주요 추진 현황≫

■ CEO 리더쉽

- 책임과 투명성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책임과 성과 중심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CEO 교육(총24회) 실시('07)
- 청렴네트워크협약 구축('07.5)
  - (사)한국투명성기구와 네트워크를 구축, 시민참여 확대로 청렴문화 정착
- 건설분야 청렴문화 실천 및 확산 결의('07. 7)
  - 사장·감사, (사)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공사계약자대표 청렴실천서약

■ 고객중심의 청렴 JCC 시스템 구현으로 기관청렴도 향상

- 상시 감사시스템(JAS- Jugong Audit System)구축
- 「청렴-CSA 인증제」실시('06.5)
  - 부패요인 제도개선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Clean-Call을 통한 성과검증 및 환류 시행

■ 임직원 의식개혁 및 변화관리

- 깨끗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계약제」시행('03. 7)
- 기업문화 혁신의 「담터운동」 전개('04. 3)
- 건설현장 청렴도 향상을 위한 「Clean 2004~2007」추진
  - 청탁대처방안, 명예감리원제도 시행, 준공소장면담제 등
- 상임이사 및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04. 6)
- 경비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린카드제」 도입('05. 5)
- 내부공익신고제도 개선('05. 6)
  - 보상금 대폭 상향(2억) 및 신고자 보호
- 「청렴상」제정·시행('06.11)
  - 청렴생활실천에 모범적인 직원을 시상함으로써 청렴의식 고취
-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설문조사 실시(연2회)
- 윤리경영 실천의 날 제정·시행('06)
  - 매월 6 또는 2일 시행, 자가진단 프로그램, 토론교육 등 실시
- 명절 선물반송센터 운영 및 협력서한 발송

■ 지속가능경영 체계 확립
- 지속가능보고서 발간('07)
- UN global compact 가입('06. 12)을 통한 글로벌 윤리기준 도입
- 공기업투명사회협약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05. 6)
  - 초대의장기관으로서 깨끗한 공기업상(像) 구현에 선도적 역할 수행

≪사회공헌활동≫

■ 주공 디딤돌 봉사단 창단('06)

■ 사회공헌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사회공헌 근무시간 인정제(연 5근무일 40시간) 마련('06)
- 매칭그랜트 제도 도입('06)
- 사회공헌 내부평가제도 도입('07)
- 사회공헌 관리시스템 구축('07)

■ '주택에서 복지까지(Housing to Wellbeing)' 사회적 책임 수행
- 주거복지 재단 설립('07.12.)
  - 쪽방(6,600가구), 비닐하우스(5,000가구) 거주가구 지원 추진
- 핵심사회공헌 '희망짓기' 개발 및 실시
  - 희망짓기사업 슬로건 및 내용

슬로건	'Housing To Wellbeing' (주택에서 복지까지)
선정기준	○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 성장 도모 ○기업이미지 특화와 기업정신 전파에 적합 여부
사업내용	희망터전만들기(건설관리)와 희망나눔(주거복지)으로 구성

≪윤리경영 추진 성과≫

■ 국가청렴위원회 3년 연속 부패방지 우수기관 선정('05, '06, '07)
■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 유공자 대통령 표창 수상('06, '07)
■ 사회공헌기업대상(공공기관 환경보전부문) 수상('06)
■ 헤럴드 경제 2007 그린주거문화대상 윤리경영부문 수상('07)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공로상 수상('07)
■ 장애인 고용 활성화 기여로 True Company상(은상) 수상('07)
■ 생태조경·녹화대상(환경부장관상) 수상('07)
■ (사)한국감사인협회 자랑스런 감사인대상 수상('07)

III. 국내 윤리경영 동향

【 기업 관련 】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8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기업인 4,720명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230명, 일반 소비자 4,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08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하였음

o 이번 조사는 혁신능력, 주주가치, 직원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이미지가치 등 모두 6개 부문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전체 산업에서 상위 30대 기업을 꼽는 '올스타(All Star)' 기업과 56개 산업별 1위 기업 등으로 나누어 결과를 발표하였음

o 올스타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포스코,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LG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안철수연구소, 삼성물산 등이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었음

◎ 윤경SM포럼, CEO 서약식 개최(3.12)

— 윤리적 기업문화를 연구하는 모임인 '윤경 SM포럼'(구 윤경포럼)은 2008년 CEO(최고경영자) 서약식을 개최하였음

o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KT 남중수 사장, KTF 조영주 사장 등 국내 60여 개 기업 CEO와 정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각계 CEO들은 윤리적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속경영을 추진하고 장수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 CEO 서약식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CEO가 변해야 기업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하에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5년 동안 130여 명의 CEO가 서약에 동참하였음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3.13)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례 회장단 회의를 갖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음

o 전경련은 결의문에서 “경제 살리기의 핵심주체인 기업은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자성하고, 기업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책임은 물론 법적, 윤리적, 사회공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o 이를 위해 전경련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회원 기업들의 CSR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기업 리스트를 공표해 벤치마킹의 모델로 제시키로 하였음

o 기업 내 CSR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경련 내 기업윤리위원회를 강화해 CSR 이행 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과 노사화합, 기부 및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함

◎ 코레일 충북지사, ´청렴 메신저´ 발대식 개최(3.14)

— 코레일 충북지사는 청렴 메신저 발대식과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o 이 날 행사에서는 각 부서에서 1명씩 총 40명을 선발하여 청렴 혁신업무를 중추적으로 담당할 사원(청렴메신저)으로 임명하고, 2008년 반부패 청렴 대책 설명, 과제별 토론·발표회 등을 가졌음

◎ 오티스엘리베이터, ‘윤리규범 실천 서약식’ 개최(3.18)

— 오티스엘리베이터는 ‘윤리규범 실천 서약식’을 갖고 윤리규범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음

o 오티스는 매분기 이 같은 행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번 행사에는 팀장급 이상 직원들 140여명이 참석하여 윤리규범 준수를 서약하였으며, 기업 윤리 경영 담당 임원의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되었음

◎ **금호석유화학, '항구적 노사평화' 선언(3.18)**

― 울산 금호석유화학 노조와 사측은 '항구적 노사 산업 평화'를 선언하였음

o 금호석유화학 노사는 선언식을 갖고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아름다운 노사문화의 지속적인 실천을 다짐하였으며,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의 지속적 실천을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으로 500년 영속 기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을 결의하였음

o 금호석유화학은 1988년부터 원만한 노사관계로 20년 무분규를 이어오고 있음

◎ **벤처산업협회, '벤처윤리경영인증제도' 사업 확대(4.1)**

― 벤처산업협회는 벤처윤리경영인증제도, 벤처기업경영 재기지원제도, 벤처 인수·합병(M&A)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특히 올해 20곳의 벤처기업이 '벤처윤리경영인증제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o 윤리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정부 훈·포상시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평가, 대기업 납품 시 우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됨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투명성기구와 '투명·윤리경영 실천 협약' 체결(4.1)**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한국투명성기구와 '투명·윤리경영 실천협약'을 체결하였음

o 협약의 내용은 국민과 사회에 대한 모범적 역할 수행,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사회적 책임 성실 수행,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정보교류 등임

◎ 참여연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ISO26000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 토론회 개최(4.1)

―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운동의 노동사회적 의의와 ISO26000에 따른 기업과 노동조합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표준협회 SR표준화포럼 노동분과위원회가 주최하고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후원하였음

o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부소장은 기업 주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o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충호 한국노총 국제연대실장은 ISO26000이 발효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노동기본권 존중, 지배구조 개선,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 환경보호 및 소비자권익 존중 등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o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강철웅 정책국장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총(ITUC)이 ISO26000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존에 확립된 국제노동기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국내 노동조합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음

◎ 대한제강,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 개최(4.1)

― 이 날 행사에서는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발표하고, 윤리규범을 준수할 것을 선언했음

o 대한제강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임직원의 윤리 마인드 고취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을 도입,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

o 또 협력업체에도 회사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동참을 유도해 상생을 위한 파트너쉽을 형성해 나갈 방침

◎ 현대·기아자동차,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결의문' 채택(4.4)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를 포함해 자산 2조원 이상의 5개 계열사를 주축으로 하는 그룹 사회책임위원회를 신설하였음

o 또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 기반 구축 및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통한 신뢰 경영, 친환경 차량 양산체제 조기 구축을 통한 환경경영 강화, 저소득층 지원 ·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 청년 봉사단 해외 파견과 같은 사회공헌 등 세 부문에서 27개 과제를 선정했음

◎ 코레일 서울지사, '협력사 초청 간담' 실시(4.10)

— 코레일 서울지사는 영업분야 협력사 초청 간담회를 실시해 코레일과 협력사간 청렴성 제고를 통한 상생경영을 다짐했음

o 코레일은 서울지사와 위탁발매, 구내영업, 촬영승인 등 협력관계에 있는 30여 개 업체를 초청하여 실시한 이번 간담회에서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지속가능경영을 구현한다는 방침을 전달했으며, 여러 협력사 대표들은 앞으로도 코레일의 지속적인 청렴한 업무처리를 당부했음

o 코레일 서울지사의 고객협력사 간담회는 전기분야, 계약 및 재산임대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것임

◎ 유엔글로벌콤팩트, '사회책임경영 교육원칙' 서명 교육기관 발표(4.10)

—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는 "세계 경영대학 100곳이 '사회책임경영 교육원칙'에 서명했다"고 밝혔음

o '사회책임경영 교육원칙(PRME, 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이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07년 7월 인권·노동·환경·반부패 이슈와 경영을 접목시키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정상회의에서 발의한 경영교육 헌장임

o 미국의 하버드와 와튼, 프랑스의 인시아드 등 세계적 경영대학들과 함께 국내에선 카이스트(KAIST)가 PRME 서명에 참여하였음

o 서명 대학들은 PRME에 따라 '기업윤리', '기업과 사회' 등 지속가능성 이슈를 경영학 기본과정에 담아 운영해야 하며, 사회책임 리더십 교육을 위한 교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산·학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함

o 이에 따라 카이스트는 '환경경영', '지배구조론', '기업과 사회' 등 CSR 특성화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방침

— PRME에 참가하지 않은 국내 경영대학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슈를 교과 과정에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음

o 연세대 경영대학교는 2008년 9월부터 '사회적 기업 과정'을 신설하고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각각 1개 과목씩 개설·운영할 예정

o 서울대는 5월 초 '지속가능경영 연구센터' 발족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대 교수들의 CSR 연구 성과를 모아 이르면 이번 가을에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

◎ SK증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4.14)

— SK증권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투명경영 활동을 강화할 계획

o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 이를 통해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 등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SK증권은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준수조직 운영 및 체크리스트 등의 시스템에 의한 정기적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 위반건 발생시 해당 개인과 조직에 대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징계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

◎ 하이닉스, 지속경영보고서 발간(4.15)

— 하이닉스반도체는 지속가능한 회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업계 최초로 ‘지속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발간하였음

o 이 보고서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 외에 윤리경영, 사회공헌활동, 환경경영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성과를 함께 담고 있음

o 특히 윤리경영 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윤리경영시스템,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국내 최초 외부 환경감시체제인 환경경영 검증위원회, 업계 최초의 청정개발체제 사업 프로젝트 등에 관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 삼호산업-부산대, 윤리경영 산학협력 MOU체결(4.15)

— ’나이키’의 협력업체인 삼호산업과 부산대학교가 윤리경영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조인식을 개최하였음

o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기반 구축과 부산대 대학원과정 계약학과의 공동운영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이 날 체결식은 삼호산업, 부산대, 나이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음

o 삼호산업은 향후 3년간 부산대학교에 60만 달러를 기탁해 윤리경영 정보혁신센터를 설립, 윤리경영 부분에 대한 공동 연구와 교육 활동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 대구은행, SRI 펀드 판매수익금 기부(4.16)

— 대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은 사회책임투자(SRI) 펀드 판매수익으로 조성된 2007년도분 공익기금 5,157만원을 사회복지모금회에 전달하였음

o 이번 기금 전달은 대구은행이 지난 2006년 SRI펀드를 출시한 뒤 판매사인 대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의 판매수익 중 각각 10%를 출연, 공익기금을 조성하자는 윤리경영 합의에 따른 것임

o 이 기금은 대구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절반씩 기탁되어 저소득층의 안과수술 자금에 지원될 예정

◎ 제주지역, 노사정 산업평화 선언(4.17)

—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는 도내 산업의 평화와 안정을 통해 최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사정 산업평화를 선언했음

o 이 날 제주지역 노사정 일동은 선언문을 통해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서 자율과 경쟁, 선택과 집중, 글로벌경쟁력 확보의 원칙 아래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제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침체된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의지를 한 데 모을 것"을 선언하였음

◎ 전국경제인연합회, CSR 위원회 설립 논의(4.17)

— 전경련은 기업윤리임원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CSR 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 논의하였음

o 이는 지난 3월 13일 회장단 회의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강화를 선언한 것에 따른 것으로, 그 실천 대책의 하나인 기업별 CSR위원회 설치방안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임

o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기업들이 윤리경영, 준법, 환경, 사회공헌, 소비자 보호 등 분야별로 CSR 담당 부서를 두고 있지만 CSR 위원회와 같이 전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사항을 점검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이 드물어 시너지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각 기업별로 상황에 맞게 사회적 책임 관련 조직을 설치하거나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하이닉스, '우리들의 윤리생활백서' 발간(4.23)

— 하이닉스반도체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애매한 윤리적 선택 상황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한 '우리들의 윤리생활백서'를 발간하였음

o 이 백서는 하급 직원도 윤리경영과 무관하지 않다고 서술하고, "접대와 뇌물 문제는 윤리경영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관리감독 소홀, 근무 태만, 복지부동, 차별, 정보 유출, 불합리한 업무 지시, 사적(私的)인 심부름, 비효율적 업무 처리 등도 비윤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애매한 윤리적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였음

— 하이닉스는 2000년 윤리강령을 제정해 2001년과 2003년, 2008년 초 등 세 차례 개정작업을 하고 사내(社內) '윤리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해 오고 있음

◎ 농협경기지역본부, '조합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일일감사원 교육' 실시(4.23)

— 이번 일일감사원 실무교육은 자점 및 일반감사 절차, 감사기법과 실무교육, 최근 사고발생 동향 및 현안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특강이 실시되어 일일 감사원의 감사역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음

o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점 감사시스템의 조기정착과 자점 감사 실시 강화로 사고를 조기에 예방하고 도덕경영·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LG디스플레이,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4.25)**

— LG디스플레이는 56개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 펀드 조성 등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협약의 주요내용

o 하도급법 준수를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 의지 천명(3대 가이드라인)

-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 등 단가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 및 하도급 계약·변경 시 서면계약 체결 등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보장

-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한 내부심의기구 설치 등

o 상생협력내용(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

- 상생협력펀드(100억) 조성으로 수급사업자 자금지원(우대금리 대출지원), 현금결제비율 개선(85%→95%), 기술개발 지원 등

◎ **코레일, 고위직 대상 국제청렴리더십 강화 교육 실시(4.28)**

— 코레일은 전사적인 청렴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간부직원 중 31명을 선발하여, 4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10주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가청렴지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

o 이번 교육은 국제적 반부패 규범에 상응한 공직사회의 지도자의 청렴리더십 배양·청렴교육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부패요인·방지, 반부패 국내·국제규범 등 실질적인 반부패 규범 인식, 적응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료자에게는 고려대학교 최고고위자과정 수료증을 수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강사 풀 등록이 추천되며 독일 반부패교육센터 청렴과정 이수 기회가 부여됨

【 정부 관련 】

◎ 환경부·중소기업청, 중소기업 REACH 사전 등록을 위한 1:1 컨설팅 실시(3.12)

— 환경부는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008년 6월부터 시작되는 REACH 사전 등록에 국내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08.3.12~3.21일 동안 안산 등 5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REACH 컨설팅(1:1 상담) 및 세미나』를 실시하였음

※ REACH(Regulation on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화학물질을 제조하여 EU로 수출(1톤이상/년/물질)하는 국내 기업은 사전등록·등록·신고·허가 등의 대응이 필수

o 대다수 중소기업의 REACH 대응상 애로사항인 등록대상 물질 확인, 유일대리인 선임 등에 대하여 문제점, 궁금증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REACH 서비스기관과 기업간 일대일 상담을 실시

o 아울러 아직도 REACH를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 다수 있음을 감안, REACH 제도 및 사전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병행

— 그동안 환경부는 REACH 제도 분석, 도움센터(Helpdesk) 운영, 다각적 홍보·교육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옴으로써 REACH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o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설문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REACH 인식도'는 상당히 향상(1차('06,11) 33%→ 5차('07,11) 95%)되었지만, '사전등록을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07.11)에 불과하여 정부의 REACH 사전등록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력, 재정, 관리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독자적, 적극적 대응의지가 부족하여 REACH 대응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 산업계 등 의식조사 발표(3.20)

— 환경부는 2008년 1월말부터 만 13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246개 광역 · 기초단체 정책담당자 및 제조업 · 운수업체 500여 개의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2차 기후변화 대응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음

- o 이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97.2%), 자치단체 환경정책 담당자 전원(100%), 제조업, 운수업 등 산업계 관리자 대부분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o 온난화 원인에 대해 국민들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90.3%)은 잘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산화질소(59.1%), 메탄(74.8%) 등 다른 원인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o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국민이 가장 낮았으며, 지자체의 경우에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53.7%로 조사됨

- o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생활실천에 대해 일반국민에게 질문한 결과로는, '에너지 절약 생활화' 실천(88%)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재활용상품 우선구입'(63.3%) 실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옴

- o 산업계에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물가상승(81.6%)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실업율 증가(65.8%)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o 2012년 이후 우리나라 의무감축 부담 수준에 대하여, 지자체는 'OECD 국가로서 선진국에 준'하는 감축의무를 예상하는 반면, 산업계는 'OECD 국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감축 의무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 o 산업계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발생시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60%)이 '영향 없다'고 답해 영향에 대하여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o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개인을', 지자체와 기업은 '정부'를 지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o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산업계는 대체에너지 개발・보급(48.6%), 지자체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47.8%), 일반국민은 에너지 절약 정책 강화를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교육 실시(3.24)

—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사, 공기업 임직원 등 2,790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o 이번 교육 과정은 국가발전과 청렴정책,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 황희 정승과 다산 정약용 선생 등 역사 속 청렴인물의 유적지 견학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노동부,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4.2)

— 노동부는 제8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1~4.7)을 맞아 일반국민 1,000명(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o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81.3%)는 과거에 비해 남녀고용차별이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내 남녀차별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53.9%)이,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40.1%) 보다 높아 직장내 차별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직장 내에서 남녀고용차별 관행이 가장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지급'(27.6%), '승진기회 부여' (25.3%)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모집/채용 과정' (13.5%%), '부서배치'(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장내 남녀차별문제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사업주의 의식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38.0%)하였음

o 한편,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 (60.6%)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로는 '직장보육시설'(55.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육아휴직 및 급여지급'(16.3%), '배우자 출산휴가제(13.5%)' 순이었음

—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고용상 성차별문제, 특히, 임금, 승진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o '06년부터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 대상사업장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정부표창, 정부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할 계획

o 또한,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에 시설비용 등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하고

- '08.6월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배우자출산휴가제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순천시, '청렴행정' 추진계획 발표(4.14)

— 순천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품향응 제공률 0%를 유지하고, 청렴도 9.2점 달성을 목표로 청렴 행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

o 이를 위해 불친절 및 금품향응 수수 근절, 관행화된 위법·부당 사항 개선, 민원처리 행정제도 절차 개선, 부서별 윤리경영 실천력 제고 등 5가지를 중점 추진 목표로 정하였음

o 이에 따라 불친절 공무원 이력관리와 부패행위 3진 아웃제를 실시해 옐로우 카드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으며,

o 관행화된 위법·부당사항 개선을 위해 공익신고 내부고발 보상제와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청렴행정에 대한 인식을 한 차원 높이기로 하였음

◎ **환경부-울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 합의(4.18)**

— 환경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원하고, '공익형 탄소배출권펀드(Carbon Emission Fund)' 조성 등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음

o 이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번 협약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주, 부산, 광주에 이어 4번째로 체결된 것임

o 이번 협약에서 울산광역시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60.9백만톤)으로 유지한다는 적극적 저감목표를 제시하였으며,

o 산업체 신규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발굴, 친환경 연료전환(중유→LNG 등) 및 공정효율 개선, 수송체계 개선(도심 10부제 등), 폐기물 자원화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계획

o 또한 중점 협력사업으로 공공기관·시민단체·민간기업·CDM 등록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익형탄소배출권펀드(가칭:울산탄소배출권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로 민간의 청정개발체제(CDM) 발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

※ 공익형탄소펀드 : 자본과 기술 투자로 얻어진 배출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이 주 목적인 민간 탄소펀드(Carbon Fund)와 달리 공공기관·시민단체·민간업체의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발생한 배출권의 수익을 지역 내 기후변화대응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펀드

◎ 노동부, 2008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 발표(4.21)

— 노동부는 2008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4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기로 하였음

o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정부인증 및 행정 · 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제도임

o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6개 지방노동청 지역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노사문화 대상은 전국단위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됨

- 주요 심사내용은 ①최고경영자의 노사관, ②노사문화실천요소(열린경영 · 근로자참여, 인적자원개발 · 활용, 성과배분제도,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③근로자 복지 및 기업의 사회적 의무 ④노사문화 특징 등의 추진 실적이며,

- 금년에는 노사협의회 · 경영설명회 등을 통한 협력체제를 권장하고자 동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이 올라갔고, 투명 · 윤리경영 기업을 우대하기 위하여 성실납세(모범납세자) 기업이 평가항목에 추가되었음

◎ 금융위원장,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촉구(4.24)

—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조찬강연에서 "현재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였음

o 그는 특히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상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필리핀(40위), 중국(45위)보다 낮은 52위를 기록한 예를 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또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총요소생산성 증대, 투자율 증가 등 실질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o 전 위원장은 또한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2,500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으나 이 중 국내 기업은 23개에 불과했다”면서 기업인들에게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였음

◎ **부평소방서 · 소방관련 사업자, 투명사회협약 체결(4.25)**

— 이 날 협약식에는 부평소방서 관계자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관리업, 방염처리업 허가를 받은 46개 업체 대표자가 참석하였음

o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과 원칙의 준수, 부패한 수단으로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것, 건전한 기업윤리 정착에 앞장 설 것, 소방사업분야 공정거래 질서 준수, 소방관계 법령 준수로 소방시설의 성실 · 완벽 시공 추구,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방재 실현, 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해 부실 소방시설공사 방지 등임

— 앞으로 부평소방서는 모든 소방관련 사업자에게 협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등 소방 관련업계의 반부패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협약의 이행 · 평가 · 점검 · 확산 등 협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